



'25년 국세수입 실적은 추경예산 상 세입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2.10.(화). 한국경제·아시아경제 등 「지난해 세수 본예산 대비 8.5조 결손」, 「3년연속 세수핑크...본예산 比 부가가치세 8.8조·법인세 3.9조 덜 걷혀」 제하 기사 등에서,
 - “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.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‘세수결손’을 기록했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'25년 세입예산입니다.
 - 따라서, '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- 참고로, '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에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 (372.1조원)과 비교하면 +1.8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15-41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우 (dlwodn0416@korea.kr)
	국고실 회계결산과	책임자	과 장	이기훈 (044-215-5430)
		담당자	사무관	한재수 (han142857@korea.kr)